

보도시점 (지 면) 7.17.(수) 조간
(인터넷) 7.16.(화) 12:00

한국-독일 에너지신산업·기후기술(테크) 기술교류협력 확대

-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독일 프라운호퍼 ISIT(실리콘기술연구소)와 직류전환 등 에너지 신산업 국제공동 연구개발(R&D) 본격 추진
- 기후기술(테크) 분야의 한·독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교류 협력 방안도 모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6일(화) 독일 홀슈타인 킬 대학에서 한·독 양국의 전문가와 기업들이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독 에너지 신산업 국제공동 연구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의 해외실증연구를 통한 국제적(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64억원 규모의 국제공동 연구개발(R&D)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과 독일 측 연구자들 간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 역할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독 에너지 신산업 국제공동R&D 라운드테이블 >

- (일시·장소) 7.16(화) 09:00 (현지 시각), 홀슈타인 킬 대학 강당
- (참석)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장, 녹색에너지연구원장, 전남 특구 기업 및 프라운호퍼 ISIT 연구진 등 30명
- (내용) 4개 R&D 후보 과제 논의, 양국 기업 간 1:1 기술상담 매칭, 해외 공동 연구개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

- * ① 능동 열제어(ATC, Active Thermal cotrol)를 통한 전류제어기능 강화,
- ② 직렬 입력 병렬 출력(IOSP, Input-Series Output-Parallel, 직렬) 컨버터의 결함 관리
- ③ Meshed dc 그리드 분석 및 제어
 - * Meshed grid : 에너지 수용가를 촘촘하게 연결하여 각 가정에서 생산되는 잉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전력망
- ④ 직류 그리드에 대한 풍력 및 태양광 통합 분석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직류산업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직류로 발전되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는 교류로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류 형태로 수용가에 전송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기술(테크)의 핵심적인 기술이다.

중기부와 전라남도는 전력 반도체와 직류전환 기술을 선도하는 독일의 프라운호퍼 ISIT*를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 판단하여 그간 실무협의를 지속해왔다.

* 독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자 유럽 최대의 응용 연구개발 조직인 프라운호퍼의 실리콘기술연구소

같은 날 오후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프라운호퍼 ISIT는 직류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지식공유를 활성화하고 직류 전력기자재 실증과 데이터 수집에 관해 원활한 협력을 해나가기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한독 에너지 신산업 국제공동 연구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개최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직류 전환을 위한 한국과 독일의 기술협력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더욱 빠르고 과감한 기후기술(테크) 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기술(테크) 분야의 한국과 독일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한편, 중기부는 다음날인 17일(수), 쉘레스비히홀슈타인주(Land Schleswig-Holstein)의 에너지와 기후대응을 연구하는 전문기관들과 전가·전자분야 국제적(글로벌) 기술 리더 기업인 세미크론 덴포스와도 기후기술(테크) 분야 관련 우리 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창업벤처혁신실 특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석배 (044-204-7190)
		담당자	사무관	장희수 (044-204-7193)

